



임예진 인쇄홍보대사 “인쇄인의 가족,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지난 1월 8일 개최된 2014년 인쇄인 신년인사회에서 탤런트 임예진 씨가 인쇄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사장에서 임예진 씨는 “저는 인쇄인의 가족,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불러 주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쇄홍보대사가 된 임예진 씨는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월 16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해 인쇄홍보대사 위촉 기념 순금 메달을 전달받고, 인쇄문화회관을 둘러봤으며, 인쇄홍보대사 광고홍보용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인쇄인 신년인사회 행사장에 도착한 임예진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곳곳에 모여 있는 인파에 시선을 쉽게 마주치지 못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연예인은 타인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고 좋아할 줄만 알았던 선입견과는 조금 달랐다. 인쇄홍보대사에 위촉된 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2016년 세계인쇄회의 크게 관심

연예인치고는 내성적인 성격의 임예진 씨가 인쇄홍보대사 요청을 수락한 것은 어쩌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수 있다. 모

르는 것을 그냥 아는 척하고 넘기길 싫어하는 성격이기에 더욱 큰 결심이 필요했다. 때문에 인쇄홍보대사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했다. 인쇄문화산업과 관련한 정보와 소식이 담긴 책자와 자료를 건네 받고, 심사숙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를 차분히 들여다보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하게 되자 인쇄홍보대사를 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처럼 행동에 앞서 깊이 고민하는 성격은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임예진 홍보대사의 꼼꼼한 성격은 대한인쇄문화협회

를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직지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가요?” 임예진 홍보대사의 첫 마디였다.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인쇄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했다. 김남수 인쇄문화협회 회장의 자세한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금속활자뿐 아니라 목판 인쇄도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말에는 인쇄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는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문화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안타까워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쇄문화 산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예진 홍보대사는 2016년 개최하게 될 세계인쇄회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2013년 세계인쇄회의에서 2016년 세계인쇄회의의 유치를 하게 되기까지 브라질과 경합을 벌였던 일화를 전해 듣는 내내 귀를 쫓긋했다. 아울러 2016년 세계인쇄회의의 행사와 관련해 인쇄홍보대사의 임무와 역할에 많아질 것이라는 말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했다.

순금 1냥 기념 메달 증정

이날 방문행사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우리나라 인쇄업계를 대표해 임예진 인쇄홍보대사에게 감사의 표시가 담긴 순금 1

냥의 메달을 전달했다. 메달을 전달받은 임예진 인쇄홍보대사는 인쇄인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인쇄문화회관 곳곳의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키웠다.

광고홍보 촬영 통해 친근함 배가

임예진 인쇄홍보대사는 회관을 둘러본 후 진행된 광고홍보 촬영 동안에도 가족(?)으로서의 친근함과 연예인으로서의 집중력을 함께 보여줬다. 무형문화재 이창석 씨가 복원한 훈민정음 목재 병풍을 배경으로 현존 세계 최고의 인쇄본인 ‘직지’를 들고 촬영에 임하는 모습에는 진지함이 흘렀다. 그러면서도 사진작가의 요구에 맞춰 따뜻함과 전문성이 교차하는 하나하나의 포즈에 집중했다. 자리를 옮겨 진행한 활자 전시장에서의 촬영에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활자를 광주광역시에서 공수해와 조성한 활자전시장 앞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호기심도 폭발했다. 이러한 아이 같은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미소와 몸짓으로 극대화됐다.

3시간 남짓 진행된 방문을 통해 임예진 인쇄홍보대사는 인쇄업계에 대해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으며, 훨씬 밝아진 얼굴로 홍보대사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표출했다. 뿐만 아니라 인쇄문화회관을 떠나는 순간까지 “막중한 임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되뇌었다.☺



1. 지난 1월 8일 개최된 2014년 인쇄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쇄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임예진 씨. 2~4. 임예진 인쇄홍보대사는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해 인쇄홍보대사 위촉 기념 순금 메달을 전달받고, 인쇄문화회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4. 임예진 홍보대사가 활자전시장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있다.